학생논문…임진왜란에 대한 일본과 북한학계의 이견분석

각국의 틀에 맞춰진 '임진왜란'

일본…조선침략 합리화, 전쟁이득 강조
지배층의 계급 한계성 지적…북한학계

임진왜란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다방면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방면의 견해를 알고 싶다는 단순한 의도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료의 수집이 용이했고, 비교적 날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북한학계의 이견을 분석하여 보았다. Ⅰ.에서는 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을 참고로 하여 이견이 되는 예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였고, Ⅱ. 에서는 '조선전사'와 '조선통사'를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하게 이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소주제별로 임진왜란의 원인·영향, 이순신(李舜臣)에 대한 평가, 의병에 대한 평가, 승리 요인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Ⅰ. 일본 학계의 이견 분석

1)임진왜란의 원인

임진왜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그것의 원인은 수길(秀吉)의 망상에 가까운 영토욕과 전국통일 이후 대명(大明)들의 군사력을 밖으로의 전쟁에 소모시켜 그들의 불만을 영토 확대로써 해소시키려는 데에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 원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린다(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일본이 명과 무역을 재개하려고 조선에 그 중개(仲介)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출병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마도의 종씨에 병하여 조선국왕의 입공을 요구했으나 이미 중국에 대해 종속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병하였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주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같이 침입의 원인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것은 사실(史實)에 대한 근거가 분명치 않거나 조선침략의 합리화를 의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임진왜란의 영향

7년간의 전쟁은 조선과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재산, 인명, 문화재의 약탈·손실, 농경지의 황폐화 등으로 기본 생존력마저 위협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러한 한국민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교과서는 드물다. 아울러 일본 민중에게 끼친 피해를 언급하는 교과서는 더욱 없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풍신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 당시 조선에서 연행해 온 도공들에 의해 고도의 도자기 제조 기술이 전해지고, 동활자 인쇄술이 전해짐으로써 일본의 학문과 활자·인쇄, 요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침략 전쟁이 양국간에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왔는가 라는 교훈이 아닌 일본에서는 자국의 희생과 시련은 거의 없고,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유도함으로써 팽창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Ⅱ. 북한 학계의 이견 분석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이순신의 평가에 대해서는 남·북한 역사 학계의 이해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의병에 대한 평가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한 강조는 의병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집중과 평가로 이어진다.

임진조국전쟁에서 의병들이 투쟁은 수군과 지방군의 투쟁과 함께 전쟁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임진왜란 초기부터 나타난 의병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데에는 남·북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의병에는 농민들과 하급 관리들, 중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였다. 그들 중에서도 의병의 기본 역량을 이룬 것은 량민 농민들과 노비들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의병을 일으키고 지휘한 의병장의 신분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의병에 참여한 양인과 노비에 초점을 맞춰, 의병을 인민(양인·노비)들이 일본 침략자에 대항한 투쟁으로 끌어가고 있다.

북한 학계는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결론짓고 그 승리는 피지배 계층(양인—노비)인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쟁취되었다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Ⅲ. 결 론

임진왜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의 일부분을 조사해 분석하여 보았다.

일본 학계와는 임진왜란의 원인과 영향에서 이견이 생기고 북한 학계와는 임진왜란의 원인, 이순신에 대한 평가, 의병에 대한 평가, 승리의 요인에서 이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학계는 임진왜란의 원인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 조선의 무역 중개 거절 등 다양한 의견을 들고 있다. 그것의 영향으로는 양국간의 희생에 대한 교훈이 아닌 도자기 제조 기술과 인쇄술의 전래로 학문, 요업 등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 학계의 임진왜란의 원인과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거의 남한 학계와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으로서 중세 상업 자본의 발전에 의한 일본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고, 주체사관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이순신 등 애국 명장에 대한 계급적·시대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학계의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한 강조는 의병 연구로 이어지고, 의병을 인민들의 일본 침략자에 대한 자발적 투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결론 짓고 승리 요인 여시 파지 배층의 투쟁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일본 학계는 임진왜란을 자국의 팽창주의 이데올로기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북한 학계 역시 주체사관의 틀에 맞춰진 서술을 하고 있어 남한 학계와는 이견이 생기고 있다.

정수영
(사학·1)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주한미군범죄 근절 위한 운동본부'를 찾아서

미군범죄등 한·미간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역점

오는 28일은 윤금이씨가 동두천에서 미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윤금이씨 살해 당시 사건의 잔혹성과 한국경찰의 사대적인 수사태도로 동두천 주민들과 많은 민주단체들은 시건 경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 필요는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4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된 공대위는 한국법정에서의 공개재판을 통한 엄중처벌과 손해배상, 공개사과를 목표로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의 만행을 알렸다.

바로 이 공대위가 윤금이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93년 4월 14일 한국법정에서의 1심 공판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몇가지의 남은 과제(살해미군의 신병인도와 손해배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클 이병의 무기징역 선고(마클 이병은 항소를 올린 상태, 오는 28일 2차 공판)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공대위의 진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대위의 활동은 윤금이씨 사건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군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즉, 처음 윤금이씨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활동을 미군범죄 일반에 대한 문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등 한미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종로 5가)에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여 예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게 된다.

45년 미군이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절도, 강간, 살해 등 하루 평균 5건의 미군범죄 외에도 법죄라고 알려지지 않은 마약과 음란물의 유포 등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금까지 10만건 이상의 미군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0.7%만이 한국법정에서 한국법의 처용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미군범죄자들이 미국측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기지는 각종 세금의 면제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기지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주민들은 빈민처럼 살고 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각종 실무사업위원회를 두어 각각의 실정과 역량에 맞게 집중적인 대중사업에서부터 사안별로 연대하는 수준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번주를 '고 윤금이씨 1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제1회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행사를 갖게 된다.

〈신철식 記者〉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조 선 제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장현재(대학원직원) : 1백만원 △나창원(학생처 학생주임) : 1백만원 △이송우(기획관리실 예산관리주임) : 1백만원 △김복자(도서관 과장) : 1백20만원 △김미현(도서관 직원) : 50만원 △윤무부(생물학과 교수) : 2백만원 △이미원(국문과 교수) : 2백만원 △박순백(비서실 과장) : 3백만원 △남상열(생물학과) : 2백만원 △이상위(출판국 과장) : 1백20만원 △백문구(관재과 직원) : 1백만원 △김동현(약대 교수) : 1백만원 △정세영(약대 교수) : 1백만원 △정성현(약대 교수) : 1백만원 △서성훈(약대 교수) : 2백만원 △노영수(약대 교수) : 1백20만원 △육창수(약대 교수) : 1백20만원 △권창호(약대 교수) : 1백20만원 △김회찬(대학원 사학과 재학생) : 5만원 △서정범(국문과 명예교수) : 5백만원 △이계탁(사회대 행정학과교수) : 1천만원 △이영우(경리과장) : 1백50만원 △이호련(도서관 사무국장) : 2백만원 △양현택(도서관 열람과장) : 1백만원 △한종열(미교과 교수) : 2백만원 △김용규(기획실 예산과장) : 1백50만원 △박후용(도서관 사서과장) : 1백만원 △오연옥(수원 부총장 비서실직원) : 56만4천원 △김화영(수원 기획실차장) : 1백54만2천원 △이상국(수원 기획실 예산과장) : 1백37만4천원 △김동호(수원 기획실 기획주임) : 1백2만6천원 △심광식(수원 기획실 관리주임) : 89만4천원 △김종순(수원 기획실 직원) : 90만원 △조 청(수원 교무과장) : 1백28만4천원 △박태균(수원 교무과 교무주임) : 1백만8천원 △김인득(수원 교무과 수업주임) : 91만2천원 △변호현(수원 교무과 직원) : 69만원 △송호남(수원 교무과 직원) : 70만2천원 △이상목(외국어대학 교무주임) : 1백2만6천원 △이한희(사회과학대학 직원) : 87만6천원 △김문중(자연과학대학 주임) : 97만2천원 △김형안(공대 교무주임) : 97만2천원 △위형복(산업대학 직원) : 87만6천원 △엄태성(체육과학대학 주임) : 1백만8천원 △박경윤(산업정보대학원 직원) : 1백20만원 △김남규(대학원 수원캠퍼스 주임) : 1백만8천원 △최익환(수원 학적과 과장) : 1백11만원 △김병권(수원 학적과 주임) : 99만원 △조갑선(수원 학적과 직원) : 93만원 △백남정(수원 학적과 직원) : 85만8천원 △송길용(수원 학적과 직원) : 84만원 △왕미경(수원 학적과 직원) : 46만2천원 △정 현(수원 연구처주임) : 1백4만4천원 △신관숙(수원 연구처 직원) : 59만4천원 △정규진(수원 학생처 과장) : 1백2십만원 △진치규(수원 학생처 주임) : 1백만8천원 △홍성언(수원 학생처 직원) : 85만8천원 △조지원(수원 학생처 직원) : 52만8천원 △이원동(수원 학생처 차장) : 1백62만원 △권길조(수원 학생처 직원) : 87만6천원 △최상익(수원 학생처 주임) : 97만2천원 △윤명숙(수원 학생처 직원) : 69만원 △박진섭(수원 총무과장) : 1백11만원 △조병훈(수원 총무과 주임) : 1백12만6천원 △조신욱(수원 총무과 주임) : 1백만8천원 △김영헌(수원 총무과 직원) : 97만2천원 △채석현(수원 총무과 직원) : 85만8천원 △김철형(수원 총무과 직원) : 84만원 △박춘금(수원 총무과 직원) : 72만원 △윤대규(수원 총무과 직원) : 56만4천원 △남병구(수원 관리과 과장) : 1백12만8천원 △김병식(수원 관리과 주임) : 1백11만원 △최진환(수원 관리과 주임) : 97만2천원 △박미희(수원 관리과 직원) : 89만4천원 △오재옥(수원 관리과 직원) : 84만원 △김영구(수원 관리과 직원) : 76만8천원 △임세준(수원 관재과 과장) : 1백14만6천원 △주문균(수원 관재과 주임) : 97만2천원 △윤명숙(수원 관재과 직원) : 53만4천원 △김희조(수원 경리과 과장) : 1백18만2천원 △유종선(수원 경리과 주임) : 91만2천원 △강규진(수원 경리과 직원) : 84만원 △한성희(수원 경리과 직원) : 65만4천원 △임승양(수원 도서관 사무국장) : 1백53만원 △이근원(수원 도서관 주임) : 97만2천원 △김희정(수원 도서관 주임) : 99만원 △이상분(수원 도서관 직원) : 69만원 △이은화(수원 도서관 직원) : 67만2천원 △이주연(수원 도서관 직원) : 67만2천원 △조정연(수원 도서관 직원) : 69만원 △임종수(수원 도서관 열람과장) : 1백26만6천원 △손철용(수원 도서관 주임) : 93만원 △최병철(수원 도서관 직원) : 89만4천원 △우해경(수원 도서관 직원) : 70만2천원 △정주오(수원 도서관장고 열람과장) : 1백36만2천원 △김경미(수원 도서관 직원) : 97만2천원 △김종경(전자제산소 과장) : 1백11만원 △최용덕(전자제산소 직원) : 87만6천원 △김효식(전자제산소 직원) : 87만6천원 △김희조(수원 경리과 과장) : 1백18만2천원 △유종선(수원 경리과 주임) : 91만2천원 △강규진(수원 경리과 직원) : 84만원 △한성희(수원 경리과 직원) : 65만4천원 △임승양(수원 도서관 사무국장) : 1백53만원 △이근원(수원 도서관 주임) : 97만2천원 △김희정(수원 도서관 주임) : 99만원 △이상분(수원 도서관 직원) : 69만원 △이은화(수원 도서관 직원) : 67만2천원 △이주연(수원 도서관 직원) : 67만2천원 △조정연(수원 도서관 직원) : 69만원 △임종수(수원 도서관 열람과장) : 1백26만6천원 △손철용(수원 도서관 주임) : 93만원 △최병철(수원 도서관 직원) : 89만4천원 △우해경(수원 도서관 직원) : 70만2천원 △정주오(수원 도서관장고 열람과장) : 1백36만2천원 △김경미(수원 도서관 직원) : 97만2천원 △김종경(전자제산소 과장) : 1백11만원 △최용덕(전자제산소 직원) : 87만6천원 △김효식(전자제산소 직원) : 87만6천원 △선수근(전자제산소 직원) : 87만6천원 △정순영(전자제산소 직원) : 70만2천원 △오규자(전자제산소 직원) : 67만2천원 △류봉열(전자제산소 직원) : 56만4천원 △신규재(애지원 운영과장) : 1백54만8천원 △장정희(애지원 주임) : 1백만8천원 △김승호(애지원 직원) : 73만2천원 △김순규(수원 보건소 직원) : 97만2천원 △박일수(수원 시청자교육원 직원) : 85만8천원 △남현우(수원 연구실험센터 운영주임) : 1백7만4천원 △안정수(수원 연구 실험센터 직원) : 85만8천원 △조영애(수원 교환실 직원) : 73만8천원 △김형장(수원 예비군 연대본부 직원) : 1백2만6천원 △김회삼(수원 예비군 연대본부 직원) : 1백2만6천원 △김동섭(수원 전기실 직원) : 76만8천원 △신덕철(수원 전기실 직원) : 64만8천원 △이기영(수원 전기실 직원) : 63만원 △최돈철(수원 차량반 직원) : 81만6천원 △유경로(수원 차량반 직원) : 79만8천원 △조장희(수원 차량반 직원) : 81만6천원 △이중현(수원 차량반 직원) : 76만8천원 △문경호(수원 차량반 직원) : 79만8천원 △이진우(수원 차량반 직원) : 76만8천원 △최승득(수원 차량반 직원) : 76만8천원 △박영복(수원 차량반 직원) : 75만원 △김한태(수원 차량반 직원) : 75만원 △김복현(수원 차량반 직원) : 75만원 △유명우(수원 보일러실 직원) : 81만6천원 △서평기(수원 보일러실 직원) : 73만8천원 △박용배(수원 보일러실 직원) : 73만2천원 △오세봉(수원 보일러실 직원) : 43만2천원 △김동현(수원목공실 직원) : 73만8천원 △서인옥(수원 목공실 직원) : 61만2천원 △이경준(수원 목공실 직원) : 60만원 △박승찬(수원 건설 직원) : 81만6천원 △한부현(수원 건설 직원) : 72만원 △수원캠퍼스 관리인 일동 : 55만3천2백60원 △조선제(교육부 과학교육국장) : 5백만원

이상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접수내역임.

확 통하는 삐삐-서울삐삐·015·
첨단기술 시리즈① — 삐삐 음성사서함서비스

수도권최초—
삐삐 음성사서함 상용서비스 개시!

신호만 보낼 것인가 목소리까지 전할 것인가

서울삐삐·015·
삐삐 음성사서함 서비스

단순히 신호만 보내던 삐삐는 그만—
이제 삐삐 음성사서함서비스(VMS)를 이용하여
전할 내용을 목소리로 남기십시오.

이용방법이 간단합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삐삐를 쳐서 말한다. "군 왔다. 5시에 광한루에서 만나자"
서울삐삐015 음성사서함에서 녹음
춘향이 삐삐신호를 받고 음성사서함에 확인전화, 이도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춘향아, 5시에 광한루에서 만나자"
춘향이 오랜만 광한루에 나가 기다린다.

이럴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호출후 장소를 이동할 때
●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는 장소
● 간단한 메세지를 남길 때 ● 약속장소를 변경할 때
● 연인끼리 사랑을 전할 때

이런 분은 꼭 신청하세요
● 학생, 취업직 종사자 등 이동이 많은 분
● 자랑 해외출장이 많으분
● 사장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은 연인들

서울삐삐 015만의 유일 무료서비스
국내에서 오직 서울삐삐만이 제공해드리는 3가지 보너스. 서울삐삐 ARS(5533-015)로 신청하시면 지금 즉시 이용할 수 있읍니다.
● 서울 Express(삐삐수신) ● 동시호출 서비스
● 시간예약 부재중 안내 서비스

서울삐삐015의 기본 무료서비스
서울삐삐015의 앞선 기술력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읍니다.
● 무제한안내서비스 ● 지정시간통보서비스
● 재이호출서비스 ● 비서업무서비스
● 자명종서비스

자동응답음성서비스(ARS) (02)5533-015
공기하신 귀은 24시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분명하신 정은 잡수하여 서비스개선에 반영합니다.
● 서울삐삐소개및안내 ● 항목 및 요금안내
● 주소/가입변경안내 ● 무가서비스 안내

가입문의신청 (02)5577-015
● 3회 전화 무료 FAX. 하이텔서비스 통신료도 신청할 수 있읍니다.

서울삐삐·015·창약접수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 구내문방구
● 문의처 : 라이카통신 (02) 756-4000
경희대학교 용인캠퍼스 : 구내법률퍼시장
● 문의처 : 성호전자판매 (0331) 44-9996

서울이동통신
Seoul Mobile Tele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3(노바 B/D)
대표전화 : (02) 555-7700 FAX : (02) 554-7700
● 고객상담센터 : (02) 5577-015 ● 강남영업소 : (02) 5544-015
● 강북영업소 : (02) 2938-015 ● 강서영업소 : (02) 6366-015
● 수원영업소 : (0331) 2122-015 ● ARS : (02) 5533-015

MOTOROLA EXPRESS 켐